

2023. 6. 2.(금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6월 2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한성백제박물관(전시기획과)

한성백제박물관장	유병하	2152-5802
전시기획과장	권순철	2152-5910
담당자	송동림	2152-5914
관련 누리집 (메뉴)	https://baekjemuseum.seoul.go.kr/	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한성백제박물관, 한국현대중국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

- 한성백제박물관-한국현대중국연구회, 교육문화의 조사·연구·전시 업무 상호 협력 합의
- 5.30.(화) 협약 체결 후 양질의 연구성과 및 다채로운 행사 선보이길 기대
-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세계 문화유산 선보일 예정

- 한성백제박물관(관장 유병하)은 5월 30일(화), 한국현대중국연구회(회장 김학준)와 문화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양 기관의 협약 내용은 ▲‘시민 참여 전시실’ 공동 전시 개최, ▲전시 운영을 위한 소장 자료의 상호 협조, ▲한·중 교육문화 연구 및 행사 공동 추진, ▲한·중 문화 관련 연구자료·간행물·시설 상호지원 등이다.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그동안 양 기관이 축적한 학술·소장자료 정보를 공유하고, 공동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며 그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.

- 5월 30일(화), 한성백제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, 김학준 한국현대중국연구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·중 교육문화 조사·연구와 특별전시 등을 개최하고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.

- 한성백제박물관과 한국현대중국연구회가 향후 공동으로 개최할 전시회에서는, 한국현대중국연구회에서 소장·관리하고 있는 고대 중국의 화상석, 청동 거울, 불상 등의 탁본, 도자기, 서화, 금속류의 실제 유물들을 만나 볼 수 있을 예정이다.

-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은 한성백제박물관이 서울시의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관 중 하나로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일본, 베트남, 태국 등의 여러 국가의 문화기관과 교류사업을 펼쳐 서울 시민에게 다양한 세계의 문화유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: 업무 협약 개요 1부.

〈업무협약 개요〉

·행사명: 한성백제박물관-한국현대중국연구회 업무협약(MOU)

·일 시: 2023. 5. 30.(화), 오전 10시

·장 소: 한성백제박물관 회의실

·참석자: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, 김학준 한국현대중국연구회, 애홍가 주한중국대사관
교육공사 외 관계자

·내 용: 문화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

- ▶ ‘시민 참여 전시실’ 공동 전시 개최
- ▶ 한·중 교육문화 연구 및 행사 공동 추진
- ▶ 한·중 문화 관련 연구자료·간행물·시설 상호지원
- ▶ 학술정보 교류·자문 및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
협약식 진행



협약식 진행(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 관장-김학준 한국현대중국연구회 회장)